

漢語의 遇攝과 流攝의 음운 변화와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시기 층위*

權 赫 竣**

<목 차>

1. 서론
2. 漢語 각 攝별 음운 변화
 - 2.1 遇攝
 - 2.2 流攝
3. 한국한자음의 층위
 - 3.1 遇攝의 층위
 - 3.2 流攝의 층위
4. 결론

1. 서론

漢語 음운학에서 遇攝과 流攝의 上古漢語의 기원과 中古漢語¹⁾에서의 합병과 분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두 攝은 侯部의 기원을 공유하고 있고 中古漢語 내에서의 어느 시기에는 두 攝의 일부 唇音 글자가 부분적으로 합병하기도 한

* 2010년 2월 20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개최된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에서 동일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 논문에서 '上古漢語', '中古漢語'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음운'이라는 언급이 없어도 '음운'의 개념까지 포괄하여 지칭한다.

다. 따라서 두攝의 음운 변화가 어떤 과정을 경과하는지 살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한자음이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시기 층위에 대하여 상당 부분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국한자음이 대체로 中古漢語를 반영하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漢語음운학의 최신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시기 층위에 관한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遇攝과 流攝의 上古漢語에서 中古漢語까지의 음운 변화를 복원하며 이를 근거로 두攝이 반영하고 있는 한국한자음의 시기 층위를 밝히는 것이다.²⁾ 이외에도 遇攝과 流攝이 각각 다른 韻尾를 가졌음에도 한국한자음에서 두攝 모두 ‘오’와 ‘우’형을 포함하고 있어 그 대응 관계를 살필 필요도 있다. 즉 遇攝에서 魚母 照二系, 模韻은 기본적으로 ‘오’형, 虞韻은 ‘우·유’형이 중심이 되며 魚韻은 ‘어’형으로 실현된다. 流攝은 기본적으로 ‘우·유’형이 중심이 되며 일부 唇音은 ‘오’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먼저 2.에서 上古漢語부터 中古漢語에 이르기까지 변화 과정을 살핀다. 이 논문에서는 漢語의 시기를 上古漢語, 《切韻》(601), 慧琳의 《一切經音義》(810, 이하 《慧琳》으로 간칭), 또 그 이후로 대별하여 논의한다. 이 논문은 上古漢語에서 中古漢語까지의 과정은 약술하며 中古漢語 내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上古漢語에 관해서는 《詩經》 등의 압운과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재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中古漢語는 《經典釋文》의 反切과 直音, 《切韻》, 《慧琳》 등의 韻書와 韻圖, Sanskrit와 티베트어 대음 자료 등에 근거하여 재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3.에서는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한자음에 수용된 시기 층위를 논한다. 漢語의 음운 변화를 복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자음은 대표적 전승 자료인 《訓蒙字會》(1527), 《新證類合》(1576)과 《石峰千字文》(1583)에 주로 근거하며 伊藤智ゆき(2007)의 자료판도 참조한다.

2) 이 논문에서는 中古漢語의 하한선은 대체로 南宋까지로 보기로 하고 그 이후를 近代漢語로 부르기로 한다.

2. 漢語 각 攝별 음운 변화

2.1 遇攝

遇攝은 上古漢語의 기원으로 볼 때 주로 魚部(*-a-)로부터 왔으며 일부 侯部(*-o-)로부터 기원한 글자도 있다. 遇攝은 《切韻》에서 魚韻, 模韻, 虞韻으로 구성되며 魚韻을 제외한 나머지 韻은 合口에 속한다.³⁾

魚部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요모음을 *-a-로 재구하고 있어 이를 따른다. 다만 侯部和 幽部の 주요모음의 재구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侯部가 幽部보다 고모음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와 상반된 견해로 幽部가 侯部보다 고모음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侯部和 幽部の 모음을 재구한다.

권혁준(2008)은 東屋部는 *-o{ŋ, k}로, 冬覺部는 *-u{ŋ, k}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정리한 바 있다.⁴⁾ 侯部和 幽部는 각각 東屋部, 冬覺部和 對轉 관계에 있으므로 東屋部, 冬覺部の 주요 모음에 따라 侯部和 幽部の 주요 모음이 결정되므로 上古漢語의 侯部는 *-o-로, 幽部는 *-u-로 재구한다.

遇攝 각 운별 上古漢語의 성모류별 기원은 아래와 같다.

3) 《韻鏡》第十一轉에는 魚韻만 있는데 '開'로 표기되어 있고, 第十二轉은 模韻과 虞韻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開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七音略》에서는 模韻과 虞韻이 있는 轉에서 '輕中輕'으로 표기되어 合口임을 나타내고 있다.

4)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上古漢語와 티베트어의 同源 관계에서, 幽部和 對轉 관계에 있는 冬部가 'u'와 대응이 다수인 반면, 侯部和 對轉 관계에 있는 東部는 티베트어의 'o'와 다수 대응하고 있으며, (Coblin 1986, 施向東 2000) 東漢(AD 25-220)과 三國時代(220-265)의 Sanskrit어-漢語 대응에서도 티베트어와의 대응 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俞敏 1999: 34-35) 또 西漢(BC 206-AD 9)에서는 주요 모음이 [*a]류인 上古漢語의 陽鐸部和 東屋部가 冬覺部に 비하여 다소 많이 통합하고 있다. (권혁준 2008: 32-33, 2009: 8) 上古漢語에서 南北朝시기까지의 通假에서도, 陽鐸魚部 및 談部·元部和 東屋侯部가 冬覺幽部に 비하여 더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다. (權赫竣 2008: 33-34, 2009: 8) 따라서 東部和 侯部는 冬部和 幽部に 비하여 저모음으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切韻》의 韻	脣音	舌音	喉牙音	齒音
魚	x	魚部 3등	魚部 3등開	魚部 3등
模	魚部 1등	魚部 1등	魚部 1등合	魚部 1등
虞	魚部 3등	侯部 3등	侯部 3등 魚部 3등	侯部 3등

模韻 대부분은 魚部に 기원을 두고 있는데 西漢에는 魚部와 侯部간의 押韻이 빈번하게 된다.(Ting 1975: 239) 이는 魚部 *-a가 西漢에서 *-ɔ로 변화하여 주요모음이 *-o였던 侯部와의 압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模韻 글자는 Sanskrit 번역에서 417년 이래 9 세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Sanskrit의 고유명사 'o'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으며 특히 6세기 말 이후부터는 'u'와도 대응하고 있다.⁵⁾ 模韻이 습口に 속해 있으므로 개음 -w가 있었을 것이고, 侯韻 -u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음인 -o를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6세기경에 -o > -wo의 분열을 통하여 개음 -w가 생성되어 《切韻》에서 -wo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9세기 이후 漢語-티베트어 대응 자료를 근거하면 脣音의 경우 모두 티베트어의 'u'에 대응하고 있으며 나머지 성모류에서는 'o'와 'u'와 대응이 일정하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비교적 이른 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서는 'o'와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⁶⁾ 따라서 模韻은 《慧琳》시기에도 《切韻》과 같은 -wo로 재구한다. 漢語-티베트어 대응 자료들은 -wo > -u 과도기의 음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漢語-티베트어 대응 자료에서 脣音 聲母 글자가 모두 'u'와 대응하는 것과 일부 글자가 流攝의 脣音과 反切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⁷⁾ 脣音의 고모음화가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脣音의 [+labial] 자질에 의하여 모음 -o가 脣音과 동일

5) 模韻의 글자가 'o'와 'u'를 대응한 예는, 'u'를 鳩, 'u(長音)을 烏, 'o'를 汚와 대응한 玄應의 《一切經音義》에서 보인다.(李榮 1956: 145)

6)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金剛經》(9C 이전으로 추정), 《唐蕃會盟碑》(822), 《阿彌陀經》(9 C 후반 이후) 등에서는 'o'와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金剛經》에서 土·度는 'do'와, 故는 'ko'와 대응하고, 《唐蕃會盟碑》에서 杜는 'do'와, 吾는 'go'와 대응하며, 《阿彌陀經》에서는 故는 'ko'와, 五는 'go'와 대응한다.(高田時雄 1988: 310-313)

7) 模韻과 流攝의 脣音 사이의 反切 관계에 대해서는 2.2의 논의 참조.

한 [+labial] 자질을 가지고 있는 -u로의 변화가 다른 聲母의 글자보다 선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慧琳》의 反切을 살펴보면⁸⁾ 非脣音 被切字가 反切下字로 脣音을 사용한 경우는 없고 일부 脣音 被切字가 非脣音 글자를 反切下字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脣音의 일부가 -u로 변화하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切韻》과 같은 -wo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慧琳》에서는 모든 脣音 글자에서의 변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글자부터 시작하여 변화하게 되는 어휘확산 과정의 시작임을 나타낸다. 이 변화는 향후 模韻 전체에 확산되었는데 漢語-티베트어의 대응 관계⁹⁾와 現代漢語의 독음으로부터 -u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虞韻은 주로 上古漢語의 魚部和 侯部에서 기원하였다. 魚部에 기원을 둔 글자는 脣牙喉音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模韻과 마찬가지로 **wa*¹⁰⁾가 西漢 시기에 **wo*로 변화한 후 -wo를 경과한 후 모음 -o-는 《切韻》 이전에 o > wo의 분열(breaking)에 의하여 -urwo로 변화한다. 侯部(**-o*)에 기원을 둔 글자는 脣音과 齒音, 일부 喉牙音 글자인데 이들 역시 모음의 분열에 의하여 《切韻》에서 -(j, w)wo로 변화하게 된다. 遇攝 전체는 그후 늦어도 宋代 이전에 모음 -o가 고모음인 -u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고모음화 과정을 살펴보자.

《慧琳》의 反切과 直音, 漢語-티베트어의 대응에서 3등 開口의 魚韻과 3등 合口の 虞韻이 명확하게 변별되어 있다. 이는 魚韻의 주요모음이 -o임을 말해주고 있다. 9세기 이후 漢語-티베트어 대응 자료를 근거하면, 虞韻은 대부분 티베트어의 'u'에 대응하고 있다.(高田時雄 1988: 314-317) 이에 근거하면 늦어도 《慧琳》 시기에는 虞韻의 고모음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開口 魚韻과 合口 虞韻의 합병은 표준어 체계에서 모음 -o-의 고모음화와 관련이 있다

8)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慧琳》의 모든 反切과 直音은 黃澤伯(1931)에 근거함을 밝힌다.

9) 예를 들면 '途·故·苦'가 《南天竺國菩提達磨禪師觀門》에서 각각 'thu·gu·'khu'와 대응하고 있는 것 등이다.(高田時雄 1988: 310-311)

10) Baxter(1992: 59-60)에 의하면 3등운에서 [+grave] 자질의 聲母는 脣音, 牙音, 喉音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acute] 자질의 聲母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음과의 결합을 살펴보면 [w]는 Baxter가 규정한 [+grave] 자질의 聲母 이외에도 照系가 [+grave] 개음과 결합한다. 知系와 來母는 [+grave] 자질과 [+acute] 자질 사이의 중간적 특징을 가진 개음과 결합한다.(권혁준 2009: 20-21 참조)

할 수 있다. 遇攝은 <切韻指掌圖>에서 '3獨'에 출현하는데 이는 開口의 魚韻과 合口の 虞韻이 開合의 변별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그 아래 入聲 자리에는 이미 고모음으로 변화한 通攝의 入聲 글자도 배치되어 있다. 이것 역시 $-o > -u$ 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模韻과 虞韻의 변화과정은 $-(\{j, \text{w}\})wo > -(\{j, \text{w}\})wu > -(\{j, \text{w}\})u$ 로 추정된다. 魚韻은 $-(\{j, \text{w}\})o > -(\{j, \text{w}\})u$ 의 변화를 통하여 虞韻과 합병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遇攝의 <切韻> 이후 中古漢語에서의 각 시기별 음운 변화는 아래와 같이 재구된다.

韻	<切韻>	<慧琳>	10세기 이후 (漢語-티베트어대음)	南宋
魚	$-(\{j, \text{w}\})o$	$-(\{j, \text{w}\})o$	$-(\{j, \text{w}\})o$	$-(\{j, \text{w}\})u$
模	$-wo$	$-u$ (일부 唇音) $-wo$ (나머지)	$-u$	$-u$
虞	$-(\{j, \text{w}\})wo$	$-(\{j, \text{w}\})u$	$-(\{j, \text{w}\})u$	$-(\{j, \text{w}\})u$

2.2 流攝

流攝은 주로 上古漢語의 侯部和 幽部로부터 기원하였다. 流攝은 侯韻, 尤韻, 幽韻으로 구성되는데 侯韻은 1등운, 나머지는 3등운인데 尤韻과 幽韻은 각각 重紐 3등과 4등으로 분류된다.(邵榮芬 1982) 流攝 각 운별 上古漢語의 성모류별 기원은 아래와 같다.

<切韻>의 韻	上古漢語 韻部
侯	侯部 之部(일부 唇音)
尤	幽部 之部(일부 唇音)
幽	幽部

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侯部和 幽部の 주요모음을 각각 *-o-와 *-u-로 재구한다면 각 운별 음운 변화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먼저 侯部는 東漢까지 魚部와의 압운이 빈번하다 三國시기에 이르러 일부 侯部の 글자가 幽部和 압운하기 시작한다.(周祖謨 1996: 19) 中古漢語에서 侯韻에 귀속되는데 東漢·三國시기에 불경 번역에서 'u'와 대응하기 시작하였다.¹¹⁾ 또 東晉(317-419) 시기에는 侯韻 1등에 해당하는 글자는 불경의 o와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u와 대응한다.¹²⁾

또 일본 吳音¹³⁾에서 모음은 아래와 같이 'u'로 실현되고 있다.(Karlgren 1915-1926)

글자	口	偶	侯	頭
吳音	ku	gu	gu	dzu

이와 같은 현상은 上古漢語의 侯部和 對轉 관계에 있는 東部 1등이 吳音에서 모음이 'u'로 실현되는 것과 평행하다 할 수 있다. 韻文의 압운을 살펴보면 劉宋 시기에는 遇攝과 流攝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中古漢語의 면모가 형성되는데(周祖謨 2000: 120) 侯部 가운데 流攝 귀속 글자의 모음이 o > u의 변화를 경과하여 遇攝 귀속 글자와 분리된 것이다. 隋代에 들어와서도 侯韻과 尤·幽韻간¹⁴⁾의 압운 현상이 두드러지므로(李榮 1961-2) 《切韻》에서 侯韻의 모음을 -u-로 재구한다.

그러나 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遇攝의 模韻이 《慧琳》 이후에 운모가 -u로 변화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侯韻은 模韻의 변화 이전에 다른 음으로 변화했어야 할 것이다. 現代漢語方言에 근거하면 -ow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中

11) 예를 들면 頭: (v)tu · du · dhu, 兜: tu 등과 같다.(俞敏 1999: 34)
 12) 예를 들면 斗: tu, 兜: tu · tū, 偷: thu · thū, 頭: du · dhu · dhū, 禱: nu · no, 樓: lo · ro · ro · rhū 등이 있다.(劉廣和 2002: 163)
 13) 대체로 南朝의 劉宋에서 梁음에 걸친 5-6세기경에 일본으로 유입된 한자음으로 알려져 있다.
 14) 尤·幽韻의 모음의 재구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의 참조.

唐의 음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漢音은 'o'로, 베트남 한자음은 'eu'로 실현되고 있는데¹⁵⁾ 이것은 侯韻이 -ow로 변화한 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지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자료는 <慧琳>이다. <慧琳>의 反切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호 모순된 현상이 관찰된다.

하나, 唇音 글자가 非唇音 被切字의 反切下字로 사용된 예가 없어 唇音과의 절연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¹⁶⁾ 이러한 현상은 <慧琳> 시기에 非唇音 글자가 이미 -ow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하나는, 唇音 被切字가 唇音을 제외한 다른 성모를 反切下字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다면 侯韻 글자 모두 여전히 -u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현상의 원인은 어쩌면 <慧琳>에서 -ow로의 모음 분열이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模韻의 고모음화에 선행해야 하므로 선 늦어도 10 세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唇音의 경우 侯韻과 模韻이 합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慧琳>의 反切을 살펴보면 두 韻의 순음은 완전히 합병된 것 같지는 않다. 侯韻의 唇音 被切字가 唇音을 제외한 다른 성모를 反切下字로 다수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의 글자가 侯韻의 글자를 反切下字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模韻의 글자로 反切下字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侯韻의 '矛'¹⁷⁾는 '莫蒲反'인데 '蒲'는 模韻에 속한다. 동시에 '母謀反, 質侯反, 母

15)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Karlgren 1915-1926)

글자	口	偶	侯	頭
漢音	ko:	go:	ko:	to:
베트남 한자음	k'eu	ŋeu	heu	deu

16) 侯韻의 일부 唇音이 <慧琳>에서 -u로 변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의 참조.

17) 尤韻의 '矛·謀·牟(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謀'는 韻書나 韻圖에서 3등운인 尤韻으로 분류되지만 <經典釋文>에서는 尤韻 明母 글자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侯韻으로 분류하고 있다.(邵榮芬 1995: 213) 이와 같은 현상은 東韻 3등 '夢·目' 등의 明母에서도 발견되는데 역시 <經典釋文>에서 1등으로 읽히고 있다. 이 두 韻의 明母 글자의 공통점은 이들 明母와 동일 조건인 幫滂並母가 <切韻> 이후 輕唇音化하는 반면 明母는 重唇音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두 韻은 모음이 -u로 세음 개음 -u-가 모음 -u-에 흡수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輕唇音으로의 변화 조건인

侯反, 莫侯反, 謀侯反, 謨侯反'이기도 하다. 그러나 侯韻 脣音과 模韻 脣音의 합병을 반영한 反切은 소수이다. 이것은 《慧琳》은 侯韻과 模韻의 순음 합병의 시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黃涇伯(1931: 109)는 이에 대하여 模韻과 관계가 있는 글자를 遇攝으로 옮겨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侯韻이 -u로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模韻의 순음이 향후 'u'로 변화하여 侯韻과 합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黃涇伯의 견해처럼 侯韻의 脣音이 模韻에 귀속되었다 가정하면 Bu > Buo > Bu와 같은 과정을 예상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음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模韻의 脣音이 Buo > Bu의 과정을 경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明母 글자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謀·矛'는 現代漢語에서 mou 각각 mao로 읽히지만 '母'는 mu이다. '謀·矛'는 唐代의 韻文에서도 遇攝과 압운하는 예가 없으나 '母'는 李商隱(813?~858)의 <燒香曲>에서 遇攝의 藁·吐와 압운하며,¹⁸⁾ 白居易(772~846)의 <念金鑿子二首(1)>에서 遇攝의 聚·苦·晷와 압운하고, 宋詞에서도 遇攝과의 압운이 빈번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中唐 이후에 주로 발견되는데 이로써 明母는 변화 과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母'와 같이 《切韻》으로부터 변화 없이 -u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순음이 이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謀·矛' 등이 다른 侯韻 소속 글자와 같이 -u > -ow (> -aw)의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尤韻과 幽韻은 上古漢語에서 《切韻》에 이르기까지 모음에 변화가 없이 줄곧 -u-로 추정된다. 관련 증거는 각 시대별 불경 번역에서 Sanskrit의 'u'와 대응한다는 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慧琳》에 이르러 尤韻과 幽韻이 혼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개음의

BuV([-front])(E)가 아닌 BV(E)가 되므로 輕脣音化하는 조건과 맞지 않게 되어 重脣音으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이다. 尤韻 明母는 결국 侯韻과 같이 변화 과정을 경과하게 되어 《慧琳》에서도 侯韻과 동일한 음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李商隱은 河南人으로 '藁'는 開口의 魚韻 글자이다. 《慧琳》에서는 모음이 여전히 -o이나 潘悟雲(1983/2002: 50)에 의하면 河南에서는 일찍이 遇攝이 고모음화하면서 魚韻과 虞韻이 합병되었다.

[+grave]와 [+acute]의 차이에 의한 구별만 반영되었을 뿐이다.¹⁹⁾ 예를 들면 幽韻의 ‘繆’는 ‘經由反’으로 ‘由’는 尤韻 글자인데 ‘繆’와 ‘由’는 [+acute] 개음 -j-를 공유한 것으로 결국 두 운이 완전히 합병한다. 또 일부 尤韻 脣音에서 변화가 발견된다. 즉 尤韻 ‘浮’는 《慧琳》에서 ‘附無反, 輔無反, 坳無反’ 등으로 反切下字 ‘無’는 虞韻 글자이다. 이외에도 ‘阜’, ‘覆’ 등도 尤韻 글자이나 《慧琳》에서는 각각 ‘扶武反’, ‘敷武反’ 등으로 서북방언에서 虞韻과 합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글자는 또 尤韻 글자를 反切下字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²⁰⁾ 예를 들면 ‘覆載’에 대한 주석에는 “앞의 글자는 ‘敷務反’으로 《韻英》의 秦音으로 나타난다. 여러 字書의 음은 ‘敷救反’으로 적고 있는데 吳楚의 음이다.(上敷務反, 見韻英秦音也. 諸字書音爲敷救反. 吳楚之音也.)”라고 적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새로운 표준어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서북방언에서 脣音 글자가 다른 尤韻 글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음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반영한다. 黃涪伯(1931)는 이와 같은 현상이 尤韻의 脣音이 虞韻으로 옮겨간 것이라 해석하고 있지만 侯韻과 模韻의 경우로부터 유추하면 이와는 반대로 虞韻의 脣音이 尤韻으로 옮겨가 합병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韻英》에서 ‘敷救反’에서 尤韻의 反切下字 ‘救’를 사용한 것을 吳楚의 음, 즉 《切韻》의 음이라 한 것은, 尤韻 ‘救’가 kuu > kuuw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현실음과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慧琳도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尤韻과 幽韻은 《慧琳》 이전에 脣音을 제외한 나머지 성모의 글자에서 韻母에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2.1에서 재구한 바와 같이 虞韻의 韻母가 《慧琳》에서 -[j, w]u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侯韻과 동일 攝에 속하므로 韻尾 -w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 漢音에서는 모음이 대부분 ‘u’로 실현되고 있고 한국한자음에서도 ‘우·유’형이므로 모음이 -o-인 것 같지는 않다. 이외에도 베트남 한자음에서 侯韻은 ‘-eu’형인데 반하여

19) 음운적으로 尤韻과 幽韻의 차이는 개음의 차이로 인한 重紐의 차이로 본다면 尤韻과 幽韻의 韻母는 《切韻》에서 각각 uu와 ju로 재구된다. 물론 尤韻의 경우 [+acute] 자질 聲母의 精系의 개음은 -j-로 재구해야 할 것이다.

20) 浮: 符尤反, 扶尤反. 阜: 扶久反, 扶有反, 浮九反, 浮有反

(Karlgren 1915-1926) 尤韻은 대부분 ‘-(w)u’로 읽히고 있다. 이는 아마 3등 개음 {j, w}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음이 -o-가 되는 것이 저지되어 [+high] 자질의 -u-나 -U-로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遇攝과 구분된 점으로 미루어 韻尾 -w가 생성되어 -uw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²¹⁾

이상을 종합하여 中古漢語에서 流攝 韻母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재구된다.

韻	《切韻》	《慧琳》	《慧琳》 이후
侯	-u	-u > -ow	-u, ow(脣音) -ow(나머지)
尤·幽	-(j, w)u	-(j, w)u(脣音) -(j, w)uw(나머지)	-(j, w)u(脣音) -(j, w)uw(나머지)

3. 한국한자음의 층위

한국한자음이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층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中古漢語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외에도 上古漢語의 층위와 近代漢語 층위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河野六郎(1968)의 학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권혁준(2009: 18-20)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從母와 邪母 글자로 初聲이 각각 ‘ㄷ’와 ‘ㄸ’로 명확히 변별되는데 이것은 南朝의 반영이 아니며 《切韻》 그 이후의 반영이다. 둘째, 船母와 禪母가 한자음에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ㄸ’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마찰음 [z(j)]의 반영으로 南朝와 《慧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21) 流攝 脣音 글자의 운모가 藏語 ‘u’와 대응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운모에서 e, u, i, u 등과 대응하는데(高田時雄 1988: 346-351) 3등의 尤韻과 幽韻 글자에 e와 i는 개음을 나타내고 ‘u’는 모음 -u나 -w 운미를 대역한 것으로 보인다. -uw는 음성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오히려 -Uw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u-로 표기한다.

喻三母는 한자음의 初聲에서 ‘ㅇ(zero)’으로 실현되는데, 한국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ㅎ’로 실현된 匣母와 ‘ㅇ(zero)’으로 실현 喻三母는 南朝에서는 변별되지 않았지만 《切韻》과 그 이후 《慧琳》에 이르기까지 두 聲母는 변별되어 있다.

이상의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慧琳》이므로 河野六郎의 견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전이나 이후의 漢語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河野六郎(1968)는 한국한자음의 층위를 4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慧琳》을 중심으로 한 9세기 초의 음을 주요 층위로 보아 b층으로 하였고 그 이전 시기를 a층, d층을 근대 시기, c층을 d층보다 이른 시기로 규정하였다. 河野六郎은 c와 d층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止攝 齒頭音의 ‘ㄷ, ([v] 또는 [ʌ])’의 반영을 c층에 배치한 것으로 보아 c층이 나타내는 시기는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의 北宋(960-1126) 開封音으로 보이고,²²⁾ d층은 北宋 이후의 近代漢語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권혁준 2009: 5) 河野六郎은 遇攝과 流攝의 층위를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遇攝과 流攝의 ‘오’型和 ‘우’型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1과 3.2에서 河野六郎의 학설을 수정하기로 한다. 河野六郎가 규정한 한국한자음의 시기 층위는 아래와 같다.

遇攝

韻	한국한자음	층위
魚	어, 여	b
	오(照二系)	c
模	오	b
處	우, 유	b
	侮(모)	c

22) 《切韻指掌圖》 第 18圖에서 止攝 3등의 齒頭音이 1등 칸에 배치된다. 訓民正音식 표기 ‘ㄷ’는 바로 개음 탈락과 동시에 변화된 모음을 반영한 것이다.

流攝

韻	한국한자음	층위
侯	우	b
	母(모)	c
尤·幽	우, 유	b
	謀·矛(모)	c

3.1 遇攝의 층위

遇攝은 한국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반영되는데 2.1에서 재구한 遇攝 변화 과정도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함께 제시한다.

韻	《切韻》	《慧琳》	10세기 이후(漢語-티베트어대음)	南宋	한국한자음
魚	-{j, w}o	-{j, w}o	-{j, w}o	-{j, w}u	어, 여 오(照二系)
模	-wo	-u(일부 唇音) -wo(나머지)	-u	-u	오
虞	-{j, w}wo	-{j, w}u	-{j, w}u	-{j, w}u	우, 유 侮(모), 脯(포), 輔(보)

魚韻은 照二系가 ‘오’형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형으로 실현되었다.

河野六郎(1968)는 ‘어’형을 b층의 반영으로 보았고 照二系의 ‘오’형은 c층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伊藤智ゆき(2007: 126-127)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照二系의 ‘오’형도 b층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한자음에서는 일반적으로 ‘w’형인데 비하여 照二系는 ‘o’형으로 실현되어 있는데 이 경향은 한국한자음과 같다. 또 일본 漢音에서도 일반적으로 ‘io’형인데 비하여 照二系는 ‘o’형의 개음이 없는 直音이라는 것이다. 베트남과 일

본 한자음에서 照二系의 실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므로 한국한자음의 처리를 특수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伊藤智ゆきの 견해에 동의하여 魚韻을 모두 b층에 배치한다.

模韻의 한국한자음 ‘오’는 늦어도 《慧琳》이나 그 이전의 음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唇音의 경우 2.1의 논의를 통하여 漢語의 일부 唇音이 《慧琳》에서 -u로 변화하여 流攝과 합병하는 현상이 보이므로 순음의 ‘오’형 가운데 일부는 《慧琳》보다 다소 이른 시기의 음일 가능성이 있어 a층에 배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글자가 a층에 배치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성모에서의 층위는 河野六郎과 일치하는 것으로 b층에 배치할 수 있지만 a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虞韻의 ‘우·유’형은 河野六郎과 일치하는 것으로 b층에 배치한다. 그러나 모, ‘포’, ‘보’ 등의 예외적 순음 실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河野六郎(1968: 189)는 ‘脯(포), 輔(보)’ 등이 경순음화한 fu를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伊藤智ゆき(2007: 129)는 이들의 표기를 模韻의 ‘圃補浦’ 등의 유추에 의한 결과라 보고 있다. 河野六郎가 ‘포, 보’의 ‘오’형이 모음 [u]의 반영이라 여긴 것은 한국한자음 도입 당시 한국어의 ‘오’가 포함하는 영역이 [u]와 [o]를 모두 반영한 것인 반면 ‘우’는 전설의 [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오’는 [u]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오’가 [u]와 [o]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면 通攝 내에서 ‘옹’과 ‘웅’의 변별이 漢語 모음의 고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漢語의 通攝에서의 모음의 차이는 고저의 차이에 의한 대립이다. 또 그는 臻攝 魂韻의 ‘오’형을 b층에, ‘우’형을 d층에 배치하였는데 漢語에서는 명백히 고저의 차이에 의한 대립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권혁준 2009: 21 참조) 또 ‘포, 보’가 a층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오’형 글자가 모두 ‘甫’의 편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伊藤智ゆきの 언급과 같이 유추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侮(모)’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보자. 河野六郎(1968: 189)는 ‘侮’가

東韻 3등 明母나 尤韻 3등과 같이 경순음화하지 않고 模韻에 합류되었기 때문에 '모'로 실현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가 '侮'를 模韻에 합병된 것으로 보아 c층에 배치한 이유는 尤韻 明母가 模韻에 합류하는 현상을 c층으로 배치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3.2에서 언급하겠지만 尤韻 明母 가운데 현대 방언에서 wu로 읽히는 글자가 '모'로 실현된 것을 c층에 배치하기 어렵다. 더구나 虞韻이 《切韻》 이후에는 줄곧 -u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자가 '모'로 실현된 것은 '母'에 의한 유추이거나 a층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c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遇攝 1등 模韻에서 일부 순음의 '오'형은 a층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a층의 가능성도 있으나 늦어도 b층에 속하며 魚韻의 '어·여·오'형, 虞韻의 '우·유'형은 기본적으로 b층에 속한다. 또 模韻의 '오'형은 'uo'를, 虞韻의 '우·유'형은 '{j, w}u'를 반영한 것이다.

3.2 流攝의 층위

流攝은 한국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반영되는데 2.2에서 재구한 流攝 변화 과정도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함께 제시한다.

韻	《切韻》	《慧琳》	《慧琳》 이후	한국한자음
侯	-u	-u > -ow	-u, ow(脣音) -ow(나머지)	우 母(모 明母)
尤· 幽	{j, w}u	{j, w}u(脣音) {j, w}uw(나머지)	{j, w}u(脣音) {j, w}uw(나머지)	우·유 謀(모 尤韻 明母)

河野六郎(1968)는 侯韻과 尤·幽韻의 '우·유'형을 모두 b층에 배치하고 있다.

위의 표와 비교하면 그의 견해는 이 논문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侯韻의 한국한자음 ‘우’형을 b층에 배치하고 있는데 《慧琳》에서의 불확실성으로 명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a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侯韻의 모음 분열이 시작하는 시기를 《慧琳》으로 본다면 한국한자음에서 일률적으로 ‘우’형으로 실현된 점으로 보아 《慧琳》보다 이른 a층에 배치할 수 있다. b층의 반영이라 여겨지는 일본의 漢音이 ‘o’로 실현되고 베트남 한자음이 ‘vu’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음 분열 이후의 상황 즉 漢語 -ow의 반영일 것이다. 또 만일 ‘우’형이 -ow의 반영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에서 논의할 ‘謀(모)’가 -ow의 반영이므로 ‘우’형이 -ow를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과 베트남 한자음이 일반적으로 中唐의 漢語를 반영한 b층의 투영이라면 한국한자음은 이들보다 분명 앞선 a층의 -u를 반영한 것이라 추정한다.

侯韻과 尤韻의 明母 ‘母’, ‘謀’ 등이 模韻에 합병되었다는 黃滄伯(1931: 98)에 근거하여 明母의 ‘모’가 c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模韻의 ‘오’는 b층에 배치하고 있으면서 模韻의 明母와 합병된 侯韻과 尤韻의 明母 ‘모’형을 c층에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河野六郎의 견해에 아래와 같이 수정을 가한다.

侯韻과 尤·幽韻의 경우 한국한자음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부 明母를 제외한 글자에서 ‘우·유’형은 《慧琳》 이전의 -u나 《慧琳》의 -uw를 모두 반영할 수 있으나 尤·幽韻에서 《切韻》에서 파찰음 [dz(j)]이었던 禪母가 ‘시’로 실현된 점을 감안하면 《切韻》까지 올라갈 수 없고 《慧琳》 -uw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明母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

尤韻의 ‘謀·牟·眸·麤·矛(모)’는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음이 탈락하면서 侯韻 明母와 동일한 조건을 갖게 되며 現代의 北方方言에서는 mou, mao 등으로 읽힌다. 이들은 다른 글자와는 달리 遇攝과 합병하지 않았다. 《全唐詩》와 《全宋詞》에서 ‘謀·矛’가 遇攝과 압운하지 않고 流攝 글자와만 압운하고 있는 반면 侯韻의 ‘母’는 中唐 이후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流攝과 압운하

는 경우도 있지만 遇攝과 압운한 예가 발견되고 있음은 2.2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어쩌면 ‘謀·牟·旒·眸·矛’가 侯韻과 합류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唇腭 글자가 -u로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ow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자음 ‘모’는 -ow나 -aw의 반영으로 b층이나 그 이후의 층위에 배치될 수 있다.

반면 ‘母’가 遇攝과 합병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韻文의 압운과 現代漢語의 독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母(모)’는 ‘謀’ 등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母’가 遇攝과 합병된 이후 현대한어에 이르기까지 운모가 ‘u’인 상태를 유지 하였으며 동시에 韻母가 ‘ou’를 경과한 적이 없으므로 尤韻 明母 글자와는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어쩌면 上古漢語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母’는 之部의 글자인데 대부분 之部와 압운하지만 《詩經·國風·周南·葛覃》에서 屋部(*-ok)의 谷(屋部)과 압운하며, <國風·鄘風·蟋蟀>에서 魚部(*-a)의 雨와 압운한다. <國風>은 <大雅>나 <小雅>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母’의 모음은 《詩經》 후반기에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 *-o나 *-ɔ 등의 후설모음에 가까워졌을 지도 모른다. Baxter(1992)도 ‘母’의 上古漢語 음운을 *m(r)o/i?로 재구성하였는데 그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o와 i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다. ‘母’는 상용 글자로 한반도에 도입된 후 그 글자의 음을 고수하려 했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면 ‘母’의 ‘모’는 上古漢語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茂’는 現代漢語에서 mao로 읽히는데 한국한자음에서는 ‘무’로 실현된다. 이것은 侯韻이 -ow가 되기 이전의 漢語를 반영하는 것 같다. ‘茂’는 -u > -ow > -aw의 변화를 경과하여 效攝의 글자와 합병되는데 ‘謀·牟·旒·眸·矛(모)’가 -ow나 -aw의 반영이라면 ‘茂(무)’는 그보다 이른 -u의 반영으로 a층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 ‘休’는 한국한자음이 ‘휴’인데 ‘休’가 [+grave] 자질의 曉母의 글자로 中古漢語의 개음은 -w-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한국한자음, 즉 b층에 속하는 경우 ‘후’로 실현되는 것이 상례인데 ‘휴’가 -w- > -j- 이후를 반영한 것으로

b층보다 늦은 시기이다. '休'가 《切韻指掌圖》 第四圖에서는 3등 칸에 배치되어 4등 칸에 배치된 '黷'와 -w-와 -j-의 대립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古今韻會舉要》(1297)에서는 -j- 개음류의 글자와 같은 穆字母韻에 속해 있으므로 이 무렵이나 그 이후의 近代漢語를 반영한 것으로 d층에 배치한다. '宥·囿'는 喻三母로 [+grave] 자질의 聲母를 가지고 있는데 '유'로 실현된다. '休'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b층보다 늦은 시기의 반영이다. 《古今韻會舉要》는 -w- 개음류의 글자와 같은 鳩字母韻에 속해 있어 이 시기보다 분명 늦은 d층의 近代漢語의 반영이다.

流攝의 侯韻은 '우'형으로 실현되는데 2.2에서 언급하였듯이 《慧琳》에서 -u > -ow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 한다면 《慧琳》보다 이른 시기의 반영으로 보여 a층에 배치한다. 尤韻과 幽韻의 '우·유'형은 b층의 반영이다. 또 일부 明母의 '모' b층이나 그 이후의 반영이고 '母'는 上古漢語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侯韻의 '우'형은 'u'의 반영이며 尤·幽韻의 '우·유'형은 '{j, w}uw'의 반영이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漢語의 遇攝과 流攝의 음운 변화를 복원하고 한국한자음 층위에 대하여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遇攝 模韻은 《慧琳》에서 일부 唇音 글자가 -u로 변화하여 10세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글자가 -u로 변화한다. 魚韻과 虞韻은 南宋 이전까지 開合의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近代漢語에 와서 -{j, w}u로 합병된다. 流攝 侯韻의 -u는 《慧琳》에서 -ow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10세기 무렵에 그 변화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尤·幽韻 -{j, w}u는 遇攝 虞韻이 -u로 변화하기 이전에 -{j, w}uw로 변화한다.

한국한자음에서 模韻의 ‘오’형은 이르면 a층에 배치되고, 魚韻 ‘어·여’형과 虞韻 ‘우·유’형은 b층에 배치된다. 虞韻의 예외적인 반영으로, ‘侮(모)’는 편방 ‘母’의 유추이거나 a층의 반영으로 보이고 ‘脯(포)’, ‘輔(보)’도 편방 ‘甫’의 유추로 보인다.

侯韻 ‘우’형은 《慧琳》보다 다소 이른 시기의 a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尤·幽韻은 ‘우·유’형이 일반적인데 -u > -ow의 과정 이전의 a층의 반영으로 보이며 謀·牟·眸·麴·矛와 같은 尤韻 明母의 ‘모’는 b층이나 그 이후의 반영이지만 侯韻 ‘母(모)’는 이들과 달리 上古漢語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遇攝 模韻의 ‘오’형은 ‘uo’를, 虞韻의 ‘우·유’형은 ‘{j, w}u’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流攝 侯韻의 ‘우’형은 ‘u’의 반영이며 尤·幽韻의 ‘우·유’형은 ‘{j, w}uw’의 반영으로 두 攝에서 한국한자음은 동일한 유형으로 실현되지만 이것이 반영하고 있는 漢語는 각각 다른 음운이다. 이와 같이 漢語의 다른 음운이 한국한자음에서 동일하게 실현된 이유는 한국어 음절과 漢語의 음절 간의 대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한국어 음절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參考文獻 >

< 원전 및 사진류 >

陳彭年 等(1008), 《宋本廣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1987年 影印).
 龍宇純(1959), 《韻鏡校注》, 臺北: 藝文印書館(1982年 影印 7版).
 藝文印書館, 《等韻五鍾》, 臺北: 藝文印書館(1980년 影印 2版).
 照那斯圖·楊耐思編著, 《蒙古字韻校本》, 民族出版社.
 黃公紹 編輯 熊忠 舉要(1297), 《古今韻會舉要》(清光緒九年淮南書局重刊本), 京都: 中文出版社影印.
 周德清(1324), 《中原音韻》, 臺北: 藝文印書館影印.

- 崔世珍(1527), 《訓蒙字會》, 서울: 大提閣.
《新證類合》(1576),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韓濩(1583), 《石峰千字文》, 駱山書院(1972년 출판).
馮其庸·鄧安生(2006), 《通假字彙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논지류 >

- 儲泰松(2005), 《唐五代關中方音研究》,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_____(1965),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1983年 7版).
黃笑山(1991),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臺北: 文津出版社(1995年 出版).
黃淬伯(1931), 《慧琳一切經音義反切攷》,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李方桂(1971), < 上古音研究 >, 《*Tsinghua Journal of Chinese Studies*》, 1-61.
李 榮(1956),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1973年 影印).
_____(昌厚, 1961-2), < 隋韻譜 >, 《中國語文》第109期, 47-57, 第112期: 70-84,
第114期, 162-166.
劉廣和(2002), 《音韻比較研究》,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陸志韋(1939), 《古音說略》, 臺北: 學生書局(1979年版).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羅常培·周祖謨(1958),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 北京: 科學出版社.
馬重奇(1985), 《杜甫古詩韻讀》, 中國展望出版社.
潘悟雲(1983/2002), < 中古漢語方言中的魚和虞 >,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潘悟雲
卷》, 安徽教育出版社, 39-51.
_____(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邵榮芬(1964), < 《五經文字》的直音和反切 >, 《中國語文》第130期, 214-230.
_____(1981), < 《晉書音義》反切的語音系統 >, 《語言研究》第1期, 103-124.
_____(1982), 《切韻音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1995), 《經典釋文音系》, 臺北: 學海出版社.
施向東(1983), <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音韻 >, 《語言研究》第1期, 27-48.
_____(2000), 《漢語和藏語同源體系的比較研究》, 北京: 華語教育出版社.
俞 敏(1999), 《俞敏語言學論文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周祖謨(1996), 《魏晉南北朝韻部之演變》, 臺北: 東大圖書公司.
- _____(2000), <齊梁陳隋時期詩文韻部研究>, 《文字音韻訓詁論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17-140.
- Baxter, William(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 Coblin, South(1986), *A Sinologist's Handlist of Sino-Tibetan Lexical Comparisons*, Steyler Verlag · Nettel.
- _____(1994), *A Compendium of Phonetics in Northwes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umber 7.
- Karlgren, Bernhard(1915-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 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 高田時雄(1988),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 권혁준(2008), <漢語 通攝 韻母의 음운 변화 - 上古에서 中古까지>, 《中國語文論叢》 38집, 27-56.
- _____(2009), <한국 한자음 通攝에 반영된 漢語 음운 시기 층위>, 《中國言語研究》 30집, 1- 32.

<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reconstructing the phonological development of the Middle Chinese(MC) Yu(遇) and Liu(流) Rhyme Groups from Old Chinese(OC) to MC, and revealing their historical strata reflected on Sino-Korean. Although the two rhyme groups partly share the same OC origin, i.e., the Hou Group(侯部, *-o), the sound value of each rhyme group in MC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process of phonological changes of them, and is also significant to study why Sino-Korean reflections of each group,

which are alleged to basically represent Mid Tang phonology, are identical in spite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Mu Rhyme(模韻) in the Yu Rhyme Group originated from the OC Yu Group(魚部, *a), and developed into -o and is reconstructed as -wo in *the Qieyun*, later giving -u in the Huilin's Fanqie system. Sino-Korean '오' type reflects the a or early b layer.

The Yu Rhyme(虞韻) belonged to the OC Yu and Hou Groups in an early stage, and its phonological development is almost identical as that of the Mu Rhyme. Yu rhyme(虞韻) is reconstructed as -{j, w}u in *the Huilin*, which Sino-Korean '우, 유' are believed to exactly reflect. The Yu Rhyme(魚韻) also originated from the OC Yu Group, but had belonged to the 'Kaikou(Open mouth)' until it merged with Yu Rhyme in the late 10th Century. Sino-Korean '어' reflects the period before the two rhymes merged.

Every Hou Rhyme(侯韻) character in the Liu Rhyme Group originated from the OC Hou Group but some of labial initials from the Zhi Group(之部). It is reconstructed as -u in *the Qieyun*, and was in the mid of changing to -ow in *the Huilin*. Therefore, Sino-Korean '우', most probably, may be placed in the a layer. The You and You Rhymes(尤, 幽韻) originated from the OC Yu Group(幽部, *-u) and had reserved their phonetic or phonological values as they had been in OC until they changed to -uw in *the Huilin*. Sino-Korean '우, 유' both seem to reflect *the Huilin's* b layer.

Sino-Korean '우, 유' type appears in the both rhymes groups, which is attributed to the surface phonetic constraint of the Korean Syllables.

Key words: Old Chinese, Middle Chinese, Sino-Korean, Yu Rhyme Group(遇攝), Liu Rhyme Group(流攝), Chinese phonology, *Huili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4	2010.1.30	2010.2.6	2010.2.8	2010.2.28